

완주군, 3개 주거단지 조성

삼봉 웰링시티·미니복합·복합행정타운 등 1만908세대 규모

오는 2020년을 전후로 완주군에 175만㎡, 1만908세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 3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15만 자족도시로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착공한 삼봉 웰링시티를 비롯, 봉동읍 장구리 일원의 미니복합타운, 현 완주군청사 주변의 복합행정타운 등이 오는 2020년 전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삼봉 웰링시티는 LH가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91만4978㎡에 18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0년까지 5906세대, 1만5000명을 수용하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곳에는 완주군 보건소와 문화체육센터 등 10여개의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이 입주할 계획에 있다.

미니복합타운은 오는 2021년까지 조성되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39만6000㎡에 332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2단계는 물론, 1단계, 완주산단, 과학연구단지 등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미니복합타운은

435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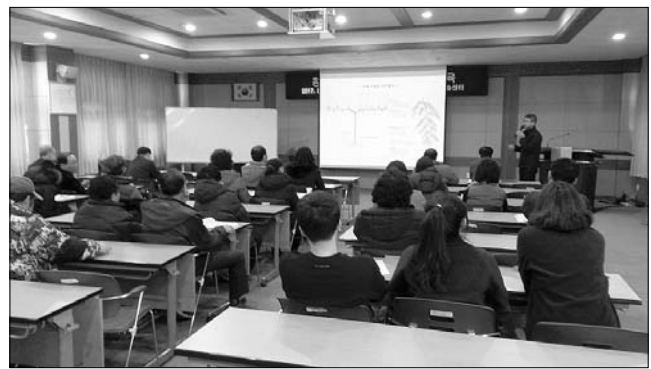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군청사 주변에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44만7000㎡ 규모의 복합행정타운은 1674세대의 주거단지와 초등학교, 공원,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데, 계획인구는 4354명이다.

특히 이들 3개 주거단지의 수용인구는 2만7700여명에 달해 향후 완주군이 인구 15만명 돌파 등 위상 제고와 함께 시민 주거안정 등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토종다래 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21일까지 실시

무주군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와 전주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가운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산학연 연구과제)으로 진행되는 '토종다래 창업을 위한 실무교육'을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걸쳐 개최한다.



무주군은 무주농업기술센터·전주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진행되는 '토종다래 창업을 위한 실무교육'을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과 농가포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기술을 향상시켜 품질고급화와 다수확을 유도하고 다래 가공기술 및 제품 생산 기술을 공유해 농가소득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토종다래연구회원들과 재배 희망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다래재배 정지정, 병충해 방제, 수확 및 건조, △에틸렌 이용현황 및 저온저장고 관리, △에틸렌 이용현황 및 저온저장고 관리, △가공 및 제품생산, 창업자를 위한 작은 마케팅 클리닝, △수확시기에 맞는 가공 제조과정 등을 교육을 받는다.

무주군 '토종다래 창업을 위한 실무

교육'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기 박사를 비롯한 이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토종다래는 해발 1,200~1,600m 지대의 물 빠짐과 토양 통기성이 좋고 습

도가 높은 곳에서 자생하는 산림작물로, 식재 후 5~6년이 경과하면 10a당 2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1kg당 1만원~1만 5천원에 판매돼 고소득 효과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재해예방사업 13억원 투입

구산마을~벌한마을 붕괴위험구간·붕괴위험 급경사지 구간 등 정비

무주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천면 두길리 구산마을~벌한 마을까지의 붕괴위험구간(2.79km)의 선형을 재정비하고, 무주를 대저리 일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구간(700m)의 사면을 낙석방지책 등으로 재정비한다.

배수불량과 사면붕괴 등 소규모 재해취약시설 19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수로와 석축을 정비하고 차량방호시설 등도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하천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68억 원을 투입한다.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풍 율령천·안성 내당천·세골천·여우내천·무풍 오산천 등 총 5개 지구 5.28km 구간을 정비하는 것

으로, 올 2월에 착공해 우기 이전에 주요 공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전재난과 재난방재 담당 라동석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무주군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소하천을 비롯한 재해취약지구와 소규모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발빠른 정비를 통해 안전해서 살고 싶은 무주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 무주경찰서 방문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14일 무주경찰서를 찾아 치안현장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날 조희현 청장은 무주서 각 부서 직원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협력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동치안활동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조 청장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

로 절도범을 검거한 강력팀 황승현 경사 외 유공 경찰관 3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동료경찰관들 중 사려가 매우 깊고 지혜로운 업무처리를 하는 안목지(安黙知)경찰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조 청장은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경찰관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완주군,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개통식 개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된 완주군이 총 8억1000만원(국비 3억원 포함)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하고 14일 개통식을 가졌다.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란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등 분야별로 분산 운영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도시상황 통합관리 기반 S/W다.

특히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관리됨에 따라 도시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시 119 긴급출동 지원을 위해 CCTV관제센터와 연계해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원주=이종복 기자

유근주 진안부군수, 사업장 현장 점검

유근주 진안군 부군수는 14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안고원치유숲(전북환경성질향 치유센터)을 비롯한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현장 등 주요시설과 사업장을 방문해 현안 행거에 나섰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설치한 구봉산 주차장과 운임안일안 캠프장 시설 등을 방문해 점검하고 봄철 관광객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등을 논의했다.

또한 안전천과 주차천 하천 재해에 방사업 부지 등을 둘러보며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생활 밀착형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성수면 냉천 주차장과 진안 IC를 비롯한 구제역 거점 방역초소도 방문할 예정이다.

유 부군수는 현장점검과 함께 읍·

면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 부군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 등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장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읍·면 방문 일정은 14일 주천면·정천면을 시작으로 16일 용담·안천면, 17일 삼전면, 20일 부귀면, 21일 진안읍, 27일 동향면, 28일 백운·성수면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공무직노조 임금 6.1% 인상 합의

진안군은 14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진안군지부(지부장 강신국)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항로 군수와 강신국 지부장, 노사양측 교섭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총액 6.1%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합의 서명했다.

이항로 군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 개최

장수군은 14일 부군수실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가졌다.

한영희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징수부서와 부과부서 팀장 등 11명이 한자리에 모여 2017년 2월 말에 이관되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별 추진사항과 징수대책을 보고하고 징수 향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회의 결과 체납사유에 따른 맞춤형 징수방향을 설정, 1차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처량 변호판 영치, 재산압류, 채권 추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LP가스 사고예방 판매사업자 간담회 실시

장수군은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LP가스 판매사업자와 읍·면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자 장수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관계자(김명삼 과장), 지역 내 LP가스 판매사업자와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전수조

사를 통한 지원계획과 각종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LP가스판매사업자와 업무담당자의 이해 및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가스사고의 안전성 확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수군은 동절기에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각종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전개하는 등 가스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라북도 | 2017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